

“스완지보다 좋은 길 있다면 막고 싶지 않다”



스완지시티 라우드럽 감독

라우드럽 감독, 기성용과 결별 시사

“미추는 꼭 필요한 선수”...상반된 평가
기성용, 토트넘전 경기장 오지도 않아

임대설이 나돌고 있는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잔류는 어려워 보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 미카엘 라우드럽 감독은 이적설이 파다한 기성용과 스페인 출신의 미드필더 미첼 미추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26일(한국시간)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EPL 2라운드 스완지와 토트넘의 경기(스완지 0-1 패)가 끝난 뒤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라우드럽은 둘에 대해 상반된 코멘

트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먼저 영국 기자가 아스넬의 러브 콜을 받은 미추의 이적 여부를 묻자 라우드럽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팀 스쿼드에 만족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긴 시즌을 보내야 한다. 이적시장 마감은 닷새 밖에 안 남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미추를 어떻게 대체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기성용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이날 토트넘 원정 엔트리에 기성용은 빠져 있었다. 한국 취재진이 “(명단 제외가) 부상 여파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한 라우드럽은 “선덜랜드에 간다는 얘기가 있다”는 물음에 잠시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꼭 필요한 선수”라며 미추에게 무한 애정을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잠깐의 머뭇거림 끝에 나온 그의 답은 이렇다. “선수에게 스완지에 남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막고 싶지 않다.” 여기서 ‘선수’란 분명 기성용이다. 결국 스완지에서의 기성용 미래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스완지는 이날 기성용이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 벤치 뒤편 일반석에서 경기를 관전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스완지측 설명과 달리, 기성용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화이트 하트레인은 취재석과 양 팀 벤치 거리가 가까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완지는 기존의 리온 브리튼, 조나단 테 구즈만, 케미 어거스틴 등에 최근 포수엘로와 존 조 셀비, 호세 카나스, 윌프레드 보니 등을 영입했다. 지난 시즌 막바지 페이스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스완지로서는 전력 보강이 당연한 선택이었다. 결국 스완지는 기성용이 빠진다고 해서 당장 공백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라는 의미다.

런던(영국) | 허유미 통신원



기성용

‘바르샤의 미래’ 이승우·장결희 명불허전

■ 현장출동

섭씨 30도의 무더위도 그라운드를 수놓은 ‘차세대 에이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8회 U-15 국제축구대회가 26일 경북 영덕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시작 전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 팀에서 활약 중인 이승우와 장결희(이상 15)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둘은 2011년 나란히 유스 팀에 입단하며 기대를 모았다.

오전과 오후에 나눠 치러진 2차례의 바르셀로나 경기. 오전 열린 호주선발팀과 경기부터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찾았다. 관중석이 좁아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라인에 길게 늘어섰다. 최전방 공격수 이승우는 호주전에서 후반 19분 교체 투입됐다. 골장 흐름은 이승우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뛰어난 순발력과 스피드를 활용해 공을 다루는 솜씨가 출중했다. 후반 33분 뛰어난 침투패스로 동료의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장결희는 결장했다.

오후에는 한국 U-15 대표팀과 맞붙었다. 이번 대회 최고 흥행카드. 두 선수 모두 풀타임 활약했다. 이승우는 오전과 같은 포지션에 섰고, 장결희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다. 바르셀로나는 프로와 마찬가지로 4-2-3-1 전술을 따랐다. 스페인 언론이 각각 메시와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주목했던 포지션이다. 이승우는 전반 시작하자마자 수비수를 달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대표급 슈팅을 때렸다. 옆 그물을 때렸다.



이승우

장결희

장결희도 뒤지지 않았다. 전반 4분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작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다.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볼 터치로 동료들과 좋은 호흡을 자랑했다. 장결희는 전반 34분 이승우의 슈팅이 끌기 못 하고 흐르자 재빠르게 공을 오른쪽으로 터치한 뒤 동점골을 터뜨렸다. 장결희는 경기 종료 직전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 이승우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며 무정을 뽐내기도 했다. 1-1 무승부.

장결희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대표팀 동료들과 경기를 해 좋았다”고 수줍게 말했다. 이승우는 “한국에서 뛰는 만큼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 엔리케 알바레스 감독은 “그들은 이미 동료들과 호흡을 매끄럽게 맞출 정도로 잘하고 있다. 기술과 스피드 모두 출중한 만큼 잘 습득해 프로 무대에서 활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덕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축구협회, 신월동서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대한축구협회는 29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SOS 어린이마을에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와 협회 임직원이 참가하는 축구 사랑나누기 봉사활동을 한다. 정몽규 회장과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다. 홍명보 감독 이하 대표팀 코칭스태프도 참가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하고 친선 축구경기를 통해 축구의 공동체 정신을 나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도 전달한다. SOS 어린이마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가장 복원시켜주고자 한 헤르만 그마이너 박사의 이상을 실천하는 아동 복지기관이다.

대구FC 김재하 단장, 사퇴 번복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던 대구FC 김재하 단장이 사퇴를 번복했다. 김 단장은 26일 대구시청 기자회견에서 “시즌 중 사퇴는 그간 팀을 지원한 시민은 물론 대구시, 기업 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3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팀을 맡을 것이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송흥민(레버쿠젠), 구자철(볼프스부르크), 박주호(마인츠)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뒤 26일 오후 귀국했다. 홍 감독은 27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유럽파가 포함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선수들은 다음 달 6일 아이티, 10일 콜로타이아와의 국내 평가전에 출전한다.

■ 최현길 사커에세이

히딩크...퍼거슨...코쿠 박지성을 살린 감독의 믿음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다. 배우자, 친구, 스승과 제자, 선후배, 이웃 등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향로가 바뀌는 게 인생이다. 운명 같은 ‘좋은’ 상대를 찾는 건 당연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즐거움 나날이 많은 값진 인생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좋은’ 상대는 게 참 묘하다. 누구나 좋다고 평가해도 자신에게 안 맞을 때가 많다. 자신과는 잘 어울리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는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상대적인 게 바로 인간관계다. 그래서 공합(宮合) 얘기가 나온다.

박지성(아인트호벤)의 경우는 공합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선수는 감독 복(福)을 타고나야한다. 독불장군은 없다. 서로 통해야 만개할 수 있다. 일본에 진출한 2000년 이후 박지성의 14년을 되돌아보면 감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박지성의 자서전 ‘범주지 않는 도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적어도 인생을 바꿀만한 기회가 세 번쯤 온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그런 것 아닐까. 히딩크 감독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눈에 보이는 기술로 바꿔놓은 사람, 그토록 꿈꾸던 유럽무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이끌어준 사람이다.”

박지성과 히딩크는 찰떡궁합이었다. 한국을 2002월드컵 4강으로 이끈 사제지간으로, 둘은 때론 2002년을 논할 수 없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불려들어 빅리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준 것도 히딩크였다. 적응이 힘들 때도, 부상을 당했을 때도 히딩크는 늘 곁에 있었다.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은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다. 박지성은 아인트호벤 소속으로 뛴 2004~200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AC밀란(이탈리아)과 경기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친 뒤 다음 시즌 퍼거슨 품에 안겼다. 이후 7년간은 ‘소리 없는 영웅’으로 각종 방면으로 축구인생의 황금기를 꽃피웠다. 박지성은 “퍼거슨은 내게 믿음을 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수만은 없는 법.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다. 지난 시즌 QPR 이적은 어쩌면 극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시즌 초반 마크 휴즈 감독 후임으로 온 해리 레드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완전히 찬밥 신세였다. 리그 20경기에 출전해 골은 없고 4도움.

올 시즌은 네덜란드로 향했다. 아인트호벤 코쿠 감독과는 8년 전 선수로 함께 뛰었기에 소통이 가능한 사제지간이다. 박지성은 AC밀란과 챔스리그 플레이오프와 리그 경기에서 베테랑의 위용을 과시했다.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며 존재 가치를 확인시켰다. 코쿠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타고난 복이 전부는 아니다. 박지성은 감독의 축구철학을 완전히 이해했고, 팀을 위해 헌신을 다했다. 그런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박지성 뿐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다. 감독은 믿음과 기회를 주고, 선수는 온 몸을 바칠 때 상생이 가능하다. 최근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라우드럽 감독과의 불화설이 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박주영(아스널) 지동원(선덜랜드) 윤석영(QPR) 등도 감독복은 없는 모양이다.

박지성의 사례는 해외 이적을 꿈꾸는 선수들에게 타산지석이 될만하다. 구단 명성이나 연봉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자신의 가치를 빛내 줄 감독과의 공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과의 공생은 명심하자.

스포츠 2부 부장

편집 | 심승호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하위리그 전남 ‘체질 개선’ 선언, 왜?

박세연 신임사장 비전 제시

전남 드래곤즈는 K리그 클래식 스피릿 라운드 하위리그(8~14위)로 처졌다.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려보야 올 시즌은 최대 8위다. 같은 모기업(포스코인) 포항 스틸러스의 승승장구 하는 행보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전남은 ‘위기를 거론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한다. 전남 박세연 신임 사

장부터 뚜렷한 비전을 세웠다. 이전까지 전남은 방향성이 없었다. 목표가 우승인지, 생존인지, 유망주 성장인지 모호할 때가 많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래서 구체화했다. 박 사장은 ▲미래 가치 ▲성적 향상 및 축구 발전의 공익 ▲신뢰와 소통을 통한 상생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신뢰다. 하석주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를 만난

자리에서 박 사장은 “믿음을 주는 구단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로써 하 감독도 잔여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은 셈. 전남은 작년 여름 하 감독과 2년6개월 계약했다. 사령탑 3년차면 시행착오를 끝내고 결실이 나올 때가 됐다는 믿음도 컸다. 하 감독도 “(올해) 잘 버티고, 그 다음을 보자”며 어린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25일 안방에서 열린 포항과 ‘포스코 데비’는 비록 2-3 석패로 끝났어도 전남의 장래가 밝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프린트도 프로의식 정착에 나섰다. 수뇌

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멈추고 오락가락한 행보는 결국 치열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저서 ‘CEO가 고민해야 할 25가지’를 나눠주며 꾸준한 공부를 요구했다. 또 사무국도 광양 외곽에서 시내 중심가로 이전한다. 전남 관계자는 “‘천릿길도 한 걸음’이란 말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히 바꿔가겠다. 그저 축구 잘하는 팀보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 계속 체질할 하겠다”며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광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